

# 안거중인 수좌들이 길을 나선 까닭은?

## 수덕사 스님들 '백제 미소길 걷기' 행사...“가야산 관통도로 중단” 촉구

여름 안거 중인 수좌스님들이 선방을 나섰다. 6월 1일 수덕사 스님들은 반결제를 맞아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응산)가 주최한 충남 예산 가야산 관통도로 건설 중단과 '백제의 미소길' 조성 촉구 행사를 위한 걷기 대회에 참석했다. '백제의 미소길'이란 충청남도가 가야산 관통도로를 내려하자 가야산연대가 사람이 걷는 길로 만들자고 제안하며 붙인 이름이다.

올해로 2회째 맞이하는 '백제의 미소길걷기' 행사에는 설정 스님(수덕사 수좌), 응산 스님(수덕사 주지), 우송 스님(수덕사 유나), 정법 스님(가야산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수덕사 조인선원과 정혜사 능인선원 등 조계종 제7교구 본·말사에서 수행정진 중인 스님 300여 명과 재가불자 1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은 원래 반결제일로 결제에 들어간 스님들이 지나간 수행을 점검하고 앞으로 수행에 정진하기 위한 시간. 가벼운 몸 풀기 산행과 사발, 묵묵 등을 하는 날이다. 그런데 왜 스님들은 '백제의 미소길' 산행에 올랐을까? 이유는 지난 1년여 간

가야산 개발 저지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차량 통행용 순환도로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나선 것.

충남도는 가야산에서 서산 쪽에 위치한 '마애삼존불상'과 '보원사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산 넘어 반대편에 있는 예산지역의 문화재와 관광지 등으로 쉽게 접근하기 위해 가야산 관통도로를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보은사지 밑에서 덕산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나 있다. 또한 서산지역으로 뻗어있는 대부분의 산은 산림청 소유로 차량이동을 차단한 채 숲속의학교와 삼림욕장 등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충남도의 계획대로 '관통도로'가 뚫릴 경우 '환경 박물관'인 가야산은 심각한 훼손 위기에 처하게 된다.

가야산이 환경박물관이라는 것은 충남도가 환경보전 종합대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01년 가야산 일대를 조사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너구리, 노루, 고슴도치, 족제비, 두더지, 박쥐, 부엉이, 올빼미, 피조리, 멧비둘기, 새매, 소쩍새, 님새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



'백제의 미소길 걷기'에 나선 수덕사 수좌 설정 스님(왼쪽) 등 300여명 스님들.

났다. 또한 소나무, 굴참나무, 으름덩굴, 경계령 등 100여종의 생물이 자생하고 딱정벌레목, 나비목, 매미기목, 노린재목, 사마귀목 등과 같은 곤충이 서식하는 등 전체 식생상태가 계룡산국립공원의 2.5배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 차량 통행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생태 환경은 어떻게 될까.

덕숭총림 사부대중의 이번 산행은 가야산에서 출발해 보원사지

까지 '백제의 미소길' 약 7km 구간을 걸으며 가야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날 설정 스님은 산행에 참가한 대중에게 "그 옛날 여기는 민가 하나 지나면 절이 있고, 절 하나 지나면 민가가 있을 만큼 절이 많고 백제 시대 때 5000여 스님들이 살았던 곳"이라며 "야외에 자리를 마련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뜻을 가진 '야단법석'이라는 말도

이곳에서 나온 말이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이곳 가야산에는 많은 자연 생태계들이 살아 숨쉬는 곳이니 만큼 자연 그대로 유지돼야 하고, 이곳에 있는 문화유산 또한 보존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응산 스님은 "지금 만들려는 도로가 군산도로도 아니고 산업도로도 아닌 관광도로인 만큼 이 아름다운 가야산을 위해 담당 관료들이 하루빨리 생각을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법 스님은 걷기 행사에 앞서 '가야산 관통도로 건설 중단과 백제 미소길 조성 촉구'를 위한 다짐대회 결의문을 발표했다. 정법 스님은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옛 절터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 산 자체가 문화 유적지인 국내 유일할 산이 가야산"이라며 "가야산을 통해 생태역사 박물관으로 지정하고 세계복합유산 등재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관통도로 대신 사람이 다닐 길을 만들지 않으면 '관통도로지지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선 기자

우리 지역 부부나혼자 | 청주 용화사 각연 스님

## “사찰 모임 불씨 되살려요”

“새롭게 바뀌겠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불자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사찰로 탈바꿈하겠다는 청주 용화사 주지 각연 스님. 스님은 현재 승가대학 총무국장 소임을 겸하며 용화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 물론 스님 혼자 이 사찰을 이끌어 간다는 말은 아니다. 스님을 중심으로 신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중무행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각연 스님은 용화사 주지로 부임해 사찰운영을 살펴본 결과 '전통사찰이면서 시내 중심에

불교교리를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법회를 진행한다는 것.

이 뿐만 아니라 6월 14일 보살 위주의 사찰 운영 때문에 접어들어 오기 힘들어 하는 거사를 위해 사찰 내에 '거사팀'도 만들었다. 이는 거사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해 모임과 사찰과 불교에 애착을 갖게 하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다.

용화사 수행모임들이 이렇게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지만 대장경독송회, 용화사 체육대회



불교대학총동문회·신도회 등 활성화 노력 '신행단체 특성에 맞는 법회·활동 개발할 것'

위대한 포교당이기도 해 많은 불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럴싸한 '외형'적 조건을 갖췄다. 하지만 외형만 갖춰져 있을 뿐 사찰 내부의 결집력이 약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숨이 끊어져가는 사찰 내 모임들을 살려내는 것.

각연 스님은 "현재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아이들이 없어 운영하던 유치원이 현재 문을 닫아 적은 인원의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 법회만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 유치원과 보육원을 다시 개원하려고 보육교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놓은 상태"고 말했다.

각연 스님은 "용화사 수행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사회·문화 등의 문제에 있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같은 전체 활동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특히 총동문회 회원이 신도회 회원도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교류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즉, 이원화되면서도 하나로 연결되는 유기적인 조직을 구성한 것.

각연 스님은 "현재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아이들이 없어 운영하던 유치원이 현재 문을 닫아 적은 인원의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 법회만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 유치원과 보육원을 다시 개원하려고 보육교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놓은 상태"고 말했다.

각연 스님은 "용화사 수행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사회·문화 등의 문제에 있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 부여 정림사지 정비사업 사전조사로 백제시대 가람구조 '윤곽'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직무대리 김낙중, 이하 연구소)는 2008년 3월 17일부터 실시한 '부여 정림사지 정비사업'을 위한 사전조사(발굴조사)를 통해 백제시대 가람구조의 전모를 밝혀냈다. 6월 27일 발표했다.

연구소는 조사에서 외적(瓦積)기단의 강당지와 회랑지를 새롭게 확인해 강당지 좌우에 별도 건물지가 강당지와 나란히 위치하고, 별도 건물지 남쪽으로 외적기단의 회랑이 배치되는 가람구조와 북·동 회랑지 적심석군이 고려시대 조성된 것을 알아냈다.

부여 정림사지(사적 제301호)는 1942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의해 조사가 시작된 이래 1979년부터 1992년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충남대학교박물관이 본격적인 조사를 펼쳤다. 조사에서 연지·중문·회랑·강당지, 우물, 와요지 등이 확인돼 가람구조의 전체 윤곽이 드러났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백제시대와 고려시대 유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시기별 가람구조의 구분이 모호했다.

연구소는 백제시대와 고려시대 가람구조 및 축조기법 규명을 위해 발굴 중심의 전면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 대전시청불자회 '孝잔치' 봉행

### 35개 동아리연합 공동 주관

대전광역시청불자회(회장 이진욱)가 대전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의 70~80세 어르신 300분을 모시고 '효(孝) 잔치'를 봉행했다. 6월 28일 복지회관 강당에서 열린 효 잔치는 대전시청불자회와 대전시청의 35개 동아리연합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효 잔치는 위문 공연과 점심 공양으로 마련됐다. 위문 공연에서는 '노래 부르는 스님' 해운 스님(삼은사 주지)의 사회로 대전시청 직원들의 생절곤 시범, 노래, 색소폰 연주 등을 선보였다. 이에 보답하듯 어르신들도 하모니카 연주와 합창 무대를 만들어 봉사자와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훈훈한 공경의 무대가 연출됐다. 손효선 기자

### 논산훈련소 수계법회 봉행

한국 최대 전법 포교도량인 육군논산훈련소에서 대규모 수계법회가 열렸다.

논산 호국연무사(주지법사 김종병)는 6월 28일 환성 스님(영평사 주지)을 수계사로 훈련병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충청지역 군불교후원회인 화엄회와 동학사승가대학, 불교어머니회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계사로 나선 환성 스님은 "5계를 받은 오늘, 이렇게 많은 부처님도 불자들이 탄생해 너무 기쁘다"며 "5계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니 잘 지키다 보면 그 삶이 행복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계식이 끝난 후에는 훈련병들의 자기 진작을 위한 신인기수바이올렛의 무대와 함께 벨리댄스, 스포츠댄스 공연 등이 마련됐다. 손효선 기자



# (사)대한불교대승종 제10대. 제11대 총무원장 이·취임 대법회



귀의삼보하옵니다.  
불타의 자비광명이 법계에 두루 하시기를 삼보전에 기원드립니다.  
금번 대한불교대승종 제11대 총무원장으로 추대받은 법진 도일 큰스님과 아울러 제10대 총무원장 법천 청화 큰스님의 이·취임을 봉행코저 하오니 제반불사에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꼭 왕립하시어 뜻 깊은 법석의 자리가 되도록 빛내주시길 양망합니다.

- ◆일 시: 불기 2552년(2008) 7월 15일 (화요일) 오후 5시
- ◆장 소: 서울 중구 장충동 소피텔엠베서더 호텔 2층 대연회장 / (02)2275-1101
- ◆연락처: (02)951-1074 / 010-9903-1257

삼단 법안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이·취임 법회

봉행위원장 법암 혜심  
집행위원장 법장 원해  
합장